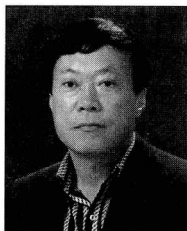


## 고난의 한나절



김 학 원

- 수필가
- 한국문인협회회원
- 국립공원협회회원

1980년대에 관광지로 지정된 강원도 홍천의 팔봉산은 전국의 산악인들이 흠모하는 명산이다. 첩첩이 쌓인 산중의 우뚝한 준봉이 푸른 강물에 휘감겨 비경을 이룬다.

1봉에 오르면 우선 주변의 경관에 탄성이 나오고 2봉을 향해 암벽을 탈때 짜릿한 스릴과 함께 손 끝에 힘이 붙으며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나 오른 길을 내려다 보면 수십길 낭떨어지가 두려움으로 변해 마음이 오싹해진다. 두손으로 바위 모서리를 잡고 기기도 하고 급경사에 놓인 철계단을 밟으며 오른 2봉에는 세 선인을 모신 삼선당(三仙堂)이 고즈넉히 앉아있다. 마을의 평안과 무병을 비는 당국이 열리고, 매년 봄과 가을에는 전국의 무속인들이 모여 굿판을 벌리기도 한다.

300여 미터밖에 되지 않는 낮으막한 석산이지만 7-80도의 가파른 암봉을 밧줄을 당기면서 넘나들기를 16번!

얕보고 덩비다가는 '오르고 또 오르면'이 아니라 '아니 간만

못하다’는 것을 실감케 된다. 자만심에 빠져 호기를 부리던 이들이 3봉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하산하기 일쑤다.

험한 급경사의 봉우리가 아찔아찔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한다.

제일 높은 3봉에 오르자 사람들의 행렬이 띠를 이루고 길게 늘어서 있다. 한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간신히 빠져 나가야 하는 암굴 때문에 진척이 없다. 여러번을 지날수록 오래 산다는 장수굴 아래에서 젊은이들은 우회전으로 안전로를 택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바위턱에 걸터 앉아서 차례를 기다린다.

굴바닥이 울퉁불퉁하고 통로가 좁아 방심하면 머리를 부딪히고 바위틈에 발목을 끼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조심, 조심 또 조심, 마음을 조여야 하는 고통을 여인네의 산고에 비유해 해산굴(解産屈)이라고도 부른다던가?

한 아가씨가 몸을 구부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자 ‘그 굴은 아이를 낳는 굴인데 처녀가 어쩔려고 들어간다냐?’ 중년의 익살에 여기저기서 ‘꺄꺄꺄’ 지루하던 분위기가 일시에 풀린다.

여덟 봉우리를 휘감고 흐르는 홍천강의 물줄기가 짙은 녹음과 어울어져 더욱 진한 비취빛을 발한다. 굽어보는 넓은 강변의 백사장에는 가족끼리, 이웃끼리 텐트를 쳐놓고 물놀이엔 여념이 없다. 천신만고 끝에 마지막 봉에 올랐다. 몇십명은 앉을 수 있는 너럭바위에서 해냈다는 자신감으로 야호를 외치고 포만감으로 별령 누워 지친 몸을 달래기도 한다.

긴장의 연속 속에서 땀을 너무 흘리고 기진해서 식욕도 잃었다. 산행 중에 만난 사람의 때 늦은 점심식사 권유를 사양하고 털썩 주저앉아 하산 할 힘을 비축했다.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신 모양이지요?”

아주머니 한 분이 썬 토마토를 내밀며 안스러워 한다. 배낭 속에 도시락이 있다는 변명도 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주머니가 고맙다.

환경의식이 달라졌다. 쓰레기를 모아 배낭에 넣고 애연가들은 담배꽂초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다. 선행인들이 버린 휴지도 누구랄 것 없이 띄는대로 집어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긴 팔봉산 정상이야. 자기, 나 장하지?”

갑작스런 내시같은 사내의 목소리에 시선이 집중된다. 아무리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지만 IMF의 고통도 모르는 맹추들인가?

핸드폰은 첨단인 전자제품이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 각색의 꼴불견이 불쌍 사납다.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요즘이 비싼 핸드폰을 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시내를 활보하며 통화하는 것은 애교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회나 영화관에서 ‘삐리릭, 삐리릭’ 신호음이 울릴 때면 짜증이 난다. 더구나 핸드폰을 들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목숨은 서너개인가?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한 고개를 넘자, 또 떡 하나주면 안잡아 먹지……막다른 고개에 다달은 어린 남매는 하늘을 우러르며 기도라도 했지만.

‘난 어떡하라고?’ 자조적(自嘲的)인 푸념이 나오며 신경이 곤두선다. 후회하기엔 이미 엮어진 물이다. 끝봉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하산 할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진다. 팔봉산을 휘감

고 도는 홍천강의 아름다움도, 백사장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못  
사람들도 이제는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  
는 자를 돕는다지 않던가. 전날까지 내린 비로 바위길이 미끄러  
미끄러워 미끄러지지만 밧줄에 목숨을 걸기로 했다.

이제는 끝이겠거니 하면 또 암벽이 나타나고 다시 밧줄을 타  
고……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온 몸은 땀과 진흙 투성이다. 하지만  
태산은 넘으면 평지를 보는 법이다. 지척의 강변을 바라보며 노  
송 아래에 주저앉아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심호흡이 나온다.

숲에 들면 몸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산뜻해 진다. 식물 호르몬  
의 일종인 코티졸 때문이다. 식물체 내에서 뿜어내는 싱그러운  
내음이 코티졸이다. 코티졸은 우리 몸에서 화학반응의 매개는 물  
론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작용도 한다.

홀린만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적송으로 뒤덮인 여덟  
봉우리를 타고 오르내리기를 3시간여, 네발로 기면서 밧줄을 잡  
아 온 몸이 기진해졌다. 그러나 마음껏 들이마신 코티졸이 세속  
(世俗)에 얼룩진 마음을 말끔히 씻어내 기분이 상쾌해진다.▲▲